

# 우리의 학교도서관에 책이 없다

## 55개 중·고등학교 설문조사로 풀어보는 학교도서관 실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에 책이 없다. 학생 1인당 장서량이 5~10권 정도 그나마 2년 안에 발간된 신간을 접할 기회는 단 한권에도 못미친다. 연간 자료구입비는 2백~3백만원 정도. 이같은 결과는 <<출판저널>>이 전국 중·고등학교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시행한 '사서교사과정 교육생' 명단을 기초로 204개 학교에 설문지를 보내 55개교에서 응답해한 것을 분석한 것이다. 비교적 학교도서관에 열의를 가진 교사들이 응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서교사의 응답이 주축인 만큼 전국 중·고등학교 도서관의 평균치를 넘어서는 것이라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응답학교 대부분 교실 2개이상(31%) 규모의 도서실을 갖췄고, 사서교사가 1인 이상(82%)이며, 1만권 이상(31%)의 장서량을 갖춘 곳이 많다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의 좀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형편을 엿볼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하루 평균 학생 60~100명 정도인데, 이들 가운데 30~90명(41%) 정도만 대출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부족으로 구입한 도서를 서가에 비치하기까지 평균 4주(36%)나 걸렸으며, 전산시설이라고는 컴퓨터 한대 정도(62%)를 갖춘 형편. 그나마 도서검색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업을 한곳은 거의 없어 도서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사서교사에 대한 지원도 부족해 지금까지 단 한번의 전문교육도 받지 못한 교사가 25%에 이르렀다.

한편, 장서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은 문학류였고, 신간구입도 문학류를 선호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감동을 줄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서를 구입할 때는 주로 출판전문지(84%)와 신문서평(62%)을 참조하는데, 출판업자나 중간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업적 도서정보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또한, 도서관의 장서는 역시 국어과목(44%)에 활용

하는 경우가 많았고, 논술(25%)·전교과과정(25%), 특별활동(20%) 순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활용도는 낮다. 그 이유로 장서부족(25%)·교과교사 인식부족(22%)·입시위주의교육(7%) 순으로 꼽았다. 결국 학교도서관이 지식정보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의지(51%)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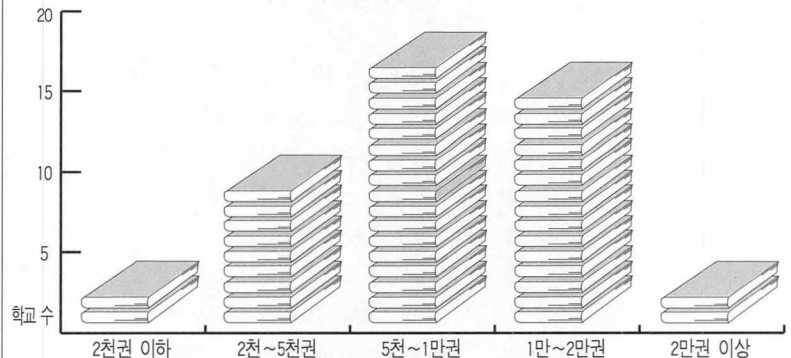
### 장서 부족은 학교를 넘어 학부모의 부담

학교도서관이 지닌 문제 가운데 핵심은 학생들이 읽을 책이 없다는 것이다. 5천~1만권 정도 갖춘 학교(31%)가 가장 많고, 1만~2만권 (27%), 2천~5천권 (16%) 정도 수준이었다. 2만권이 넘는 학교(2개교)가 있는가하면 2천권도 채 갖추지 못한(2개교) 곳도 있다. 일반학교 평균학생 수가 1천~2천명이라고 볼 때, 학생 1인당 5~10권 정도에 해당하는 도서량이다. 그나마 장서 가운데 50% 이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책이다. 90년 이전에 발간된 책이 도서관 서가의 대부분(3천~5천권)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출간된 책은 500권 정도에 그쳤다. 이는 1명당 0.5~1권의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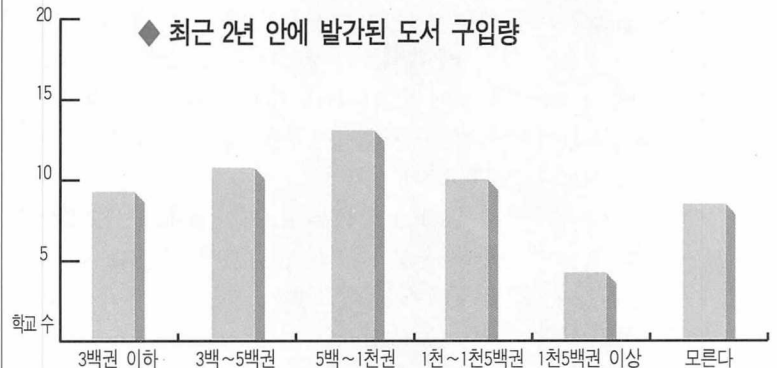
교육부가 97년 발표한 '교육통계연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 1명이 1년 동안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책이 평균 2.15권인 것을 감안하면 신간 도서량은 충분한 것이 아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대출(42%)하는 기간을 감안해 볼 때 신간을 접할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장서의 부족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곧바로 학부모를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천 박문여고 2학년 이재은 학생은 일년 동안 "15만원 가량의 학습참고서를 구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출판연구소가 98년 발표한 자료에

◆ 학교도서관 평균 장서량



◆ 최근 2년 안에 발간된 도서 구입량



따르면 학생 1인당 일반도서 구입비용은 4만3604원. 결국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451만7008명이 일년 동안 책을 사는 데 총 8745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하는 셈이다. 학생이 학교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을 금액으로 환산한 962억원을 뺀 7783억원은 학부모가 매년 되풀이해 부담하는 셈이다.

장서의 절대량 부족은 학생에게 책을 읽을 권리를 박탈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계된 학습자료를 학부모가 책임지는 대물림 현상이 빚어지면서 사회적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송문고 국어교사 허병두씨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서를 대폭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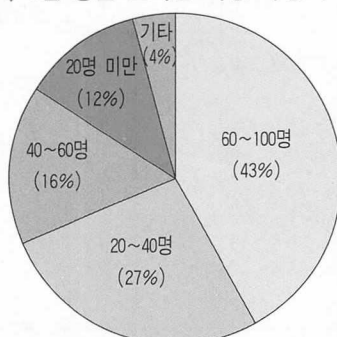
분석했다.

### 전문사서 부족이 도서관 발전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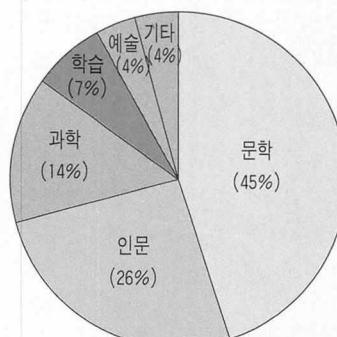
학교도서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응답한 55개 학교의 98년 평균 예산은 3백~5백만원이며, 순수 자료구입비는 2백~3백만원.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일년에 구입할 수 있는 도서는 2백~3백권으로 학생당 0.2~0.3권에 불과하다. 대다수 학교가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서관 활용이 미진한 첫째 이유 역시 '장서부족'으로 꼽았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좀더 많은 책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가 사서교사 또는 연구부가 작성한 도서목록을 기초로 지역서점과 도매상 및 총판을 활용해 행정실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는 2/4분기에 제일 많이 하고, 수의계약보다는 개별적으로 2~5년 정도 나눠 구입하고 있다. 책을 구입하는 계기는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31%)'가 가장 많고, 신간이 나올 때, 정기구매, 예산이 편성될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를 구입할 때 전문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 1일 평균 도서관 이용 학생 수



◆ 분야별 도서구입 우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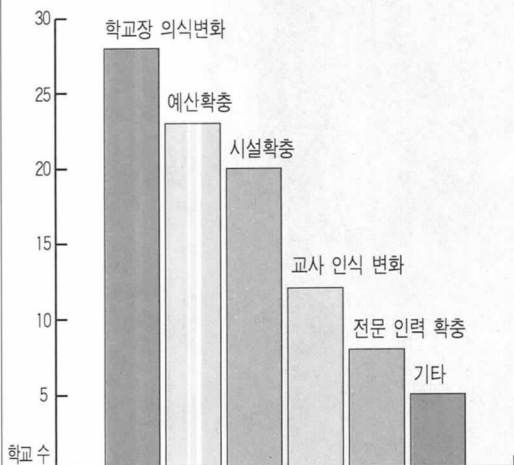
# 즐겁고 편하게 책을 읽는 공간

## 첨단 전산시스템 갖춘 '박문여고' 도서관



2만여 장서를 갖춘 박문여고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다.  
맨 오른쪽이 김현숙 사서교사.

### ◆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지금껏 사서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수는 무려 25%에 이른다. 또한 전문 사서교사로 임용됐지만 교과과목을 맡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 운영에 전념하기 힘든 형편이다. 서울 동구여상 사서교사 오진주씨는 “요즘 사회는 전문가를 요구한다. 학교도서관 역시 사서교사가 맡아 운영해야 한다. 미래의 바른 교육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이 사서교사 채용을 의무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았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사서교사는 “상업적인 정보지는 내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믿기 어렵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평지가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매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를 믿고 책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사서교사는 “한 출판에서 제공한 도서목록을 믿고 책을 구입했다가 내용이 달라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구입한 책이 서가에 비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3~4주 정도. 허병두씨는 “전문 사서교사가 있다면 1~2주일 안에 비치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응답자 45명이 사서교사지만, 이 가운데 25명이 교과과목을 겸직하고 있어 도서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서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응답학교 다수는 전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9천권의 장서를 비치한 학교조차 컴퓨터 한대 없는 곳도 있다. 전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서가 몇천권조차도 몰랐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전담하는 전문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그들이 도서구입부터 장서관리, 독서지도, 교과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중·고등학교 4612개교 가운데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고작 160곳. 사서 1명이 28학교를 맡는 꼴이다. 이들에 대한 학교지원도 극히 미진하다.

### 학교도서관 발전 정도는 학교장의 의지

학생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상명대부속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방학숙제 때문에 세익스피어 4대 비극을 읽어야 했다. 《햄릿》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책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학교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교과교사가 먼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당과목과 연계한 적절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무대에 주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는 학교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서구입 예산을 충분히 보장해준다면 도서관을 학생이 주인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 첨단설비를 갖추는 일, 이 모두가 학교장의 의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기 광동중합고 사서교사 한승훈씨는 “학생의 미래는 책읽기에 달렸고, 학교도서관의 미래는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도서관이 지식의 텃밭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서교사의 전문성 발휘, 그리고 교과교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음울하다. 교육당국은 이를 타개할 비책을 하루 빨리 제시할 때다. 청소년이 양서를 읽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완진 기자

인천시 송림동에 자리한 박문여고(교장 민병훈)는 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손꼽힌다. 2만권이 넘는 장서와 1,534명에 이르는 학생 모두에게 개인 사용자번호(ID)를 부여해 도서를 관리할 만큼 주변여건을 잘 갖췄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장 이하 전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서교사 김현숙씨의 3년여 노력 끝에 얻은 결실.

“학교도서관이 어떤 환경을 갖추느냐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예산확보, 도서구입, 시설확충, 교과과목과의 연계 등 모든 체계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박문여고는 그동안 꾸준히 도서구입을 위해 예산을 증편해왔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학교 가운데 보유 장서수 최상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모든 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증과 도서에 바코드를 붙이고 대출 또는 반납할 때 스캐너로 읽어 곧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증은 학년이 바뀌는 1년마다, 도서는 신간을 비치할 때마다 바코드를 붙여 전산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코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서관 보유 또는 대출 도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의 영역 넓히기는 홈페이지(www.pakmun-gh.ed.incheon.kr/nas/) 구축으로 이어졌다. 학생 스스로 도서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홈페이지에는 자료검색, 읽기자료, 대출현황, 교사가 석달에 한번

씩 구입할 도서를 요청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신간등록 정보를 담은 신착자료, 국내 대학도서관 및 외국 전자도서관의 도서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를 열어놓았다. 이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서교사 김현숙씨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 학교의 지원에 힘입어 전산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박문여고는 250석에 이르는 열람실도 갖추고 있다. 학생 누구나 스스럼없이 도서관을 찾고 빌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가꿨다. 가톨릭계 학교의 학풍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방침도 도서관 활성화에 큰 몫으로 작용했다. 그래도 김현숙씨는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학생이 교과과목과 관련된 도서자료를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안타깝다.

“도서관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갖췄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해 학습관련 자료를 구입하는 1차 소비자가 된다면 학생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보화 사회로 나아갈수록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회에서도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에게 말로만 책을 읽으라 할 것인가. 올바른 도서정보를 전달할 매체 하나 못 갖춘 사회에서 첨단시스템을 갖춘 박문여고의 노력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오완진>